

코로나로 배달주문 ↑ ‘배민’, 연매출 1조 돌파...112억 적자

지난해 매출 1조995억 원...전년 대비 94.4% 증가 배민 통한 자영업자 거래액은 15조 원으로 급증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국내 음식 배달업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 만에 매출 1조 시대를 열었다. 우아한형제들은 30일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조99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4.4%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마케팅 경쟁과 프로모션 비용 지출 등으로 11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한 해 전에 비해 적자폭이 69.2% 줄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배민 입점 점주는 물론 모든 외식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네 차례에 걸쳐 광고비 50%를 환급했다. 또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라이더를 위해 생활비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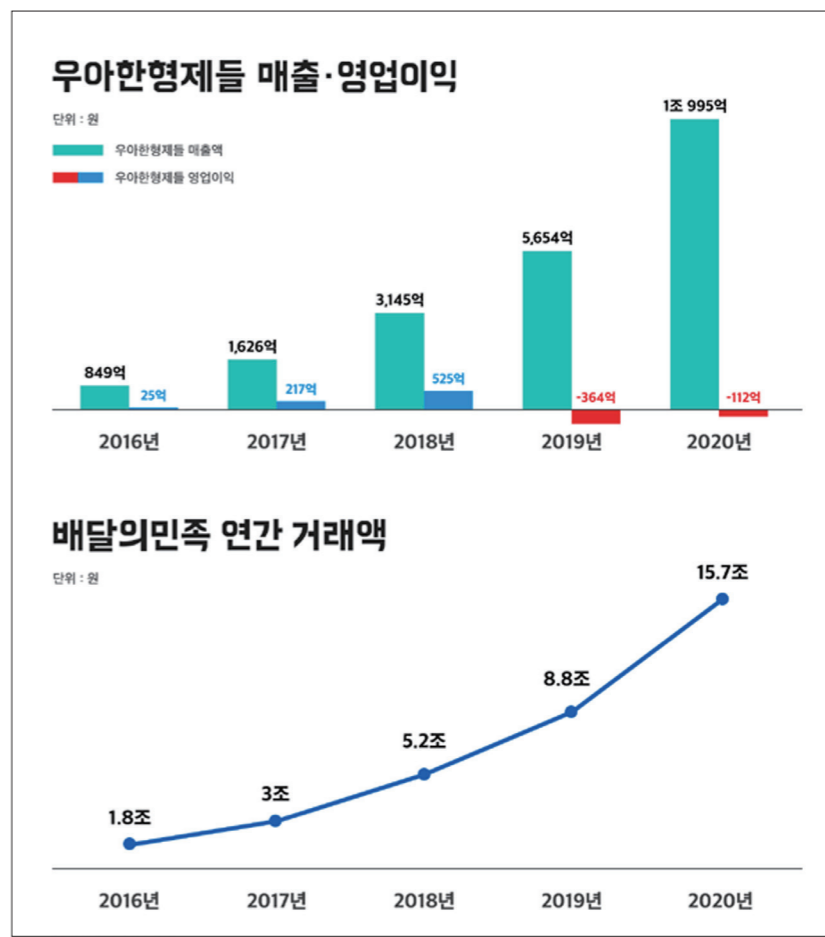
이처럼 지난 한 해 동안 소상공인과 라이더, 코로나19 의료진 등을 위해 지원한 금액은 약 800억 원에 달한다.

배민 통한 자영업자 매출 15조원 넘어...시장 성장세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배달 음식 시장은 최근 3년 새 6배 이상 커졌다. 배민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올린 매출도 지난 2015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8년 약 5조 원 규모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5조 원 대로 경종 뛰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데 제약이 많은 해였다. 배민은 배달과 포장 등 다양한 주문 형태로 고객과 식당을 연결하며 외식

업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에 일조할 수 있었다.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은 신규 사업에 뛰어들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전국별미’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국별미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로, 전국 각지의 신선한 먹거리를 산지 직송으로 전달해주고 있다. 로봇 개발 사업에도 박차를 가했다. 국내 최초로 대단위 아파트에서 자율주행으로 배달하는 로봇 ‘딜리드라이브’를 운용했으며, 호텔 내에서 배달하는 로봇 ‘딜리타워’도 시범 운행 중이다. 최근엔 배달 로봇 상용화를 위해 현대차·기아와 손잡기도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올해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는’ 비전 하에, 푸드테크 1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게

확이다. 지난 9일 론칭한 배민쇼핑라이브는 배달앱 최초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음식을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객과 실시간 댓글로 소통하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딜리버리허오와의 합병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동남아 개척이라는 새로운 도전에도 나서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싱가포르에 설립한 ‘우아DH아시아’를 통해 아시아 15개국의 배달 서비스를 총괄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국내외 푸드 딜리버리 시장에서는 현재 혁신의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선도 기업이자, 아시아 경영을 펼치는 기업으로서 소비자 요구 변화, 시장경쟁 상황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면서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품평회 심사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비대면 통합포럼'에서 심사위원들이 제품을 심사하고 있다. 이번 품평회는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경기도 내 97곳에서 생산한 농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 등 287개 제품을 심사해 제품특성에 맞는 유통채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전기료 석달간 지원

집합금지 업종은 50%·영업제한 업종 30% 지원

한국전력이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지원한다. 한전은 이러한 지원책이 포함된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 25일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통과에 따라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중대본 발표에 따라 집합금지(18만5000개) 또는 영업제한(96만6000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은 4월부터 6월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받는다.

서선욱기자

배달 기사 '불공정 계약서' 사라진다...정부 합동 조사

기사 수 50명 이상 업체 150곳 선정 계약서 내 불공정 조항은 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서울시·경기도·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수도권 배달 대행업체와 기사 간 계약서를 들여다본다. 상대적 약자인 배달 기사가 불공정 계약 조항을 남용하는 대행업체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공정위는 30일 "지역 배달 대행업체-기사 간 계약 관계는 다수의 영세한 업체를 전수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점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기사의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관계의 기본이 되는

공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라는 얘기다. 조사 대상은 서울·경기에 있는 배달 대행업체 150여 곳이다. 이는 생각대로·바로그·부릉 등 배달 대행 플랫폼 상위 3사와 거래하는 전체 배달 대행업체(700여 곳)의 20%에 해당한다. 거래 배달 기사 수가 50명 이상인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각 지역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이용 중인 계약서를 받아 계약 조항의 공정성을 살핀다. 불공정 조항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자율 시정을 요청해 계획안을 받는다. 이 중 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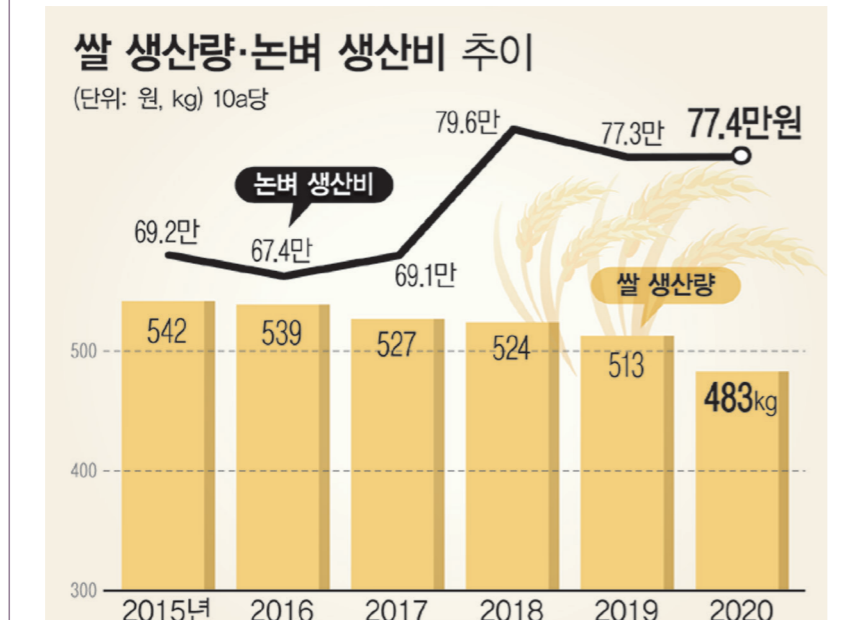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에는 "계약서를 쓰라"고 권고하고, 정부가 업계와 함께 제정한 표준 계약서를 안내할 예정이다. 배달 대행업체가 표준 계약서를 채택하면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하물 배송 대행 사업자 인증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이슬기자

작년 긴 장마에 20kg 쌀 생산비 3만원 넘겨

쌀 20kg 생산에 3만1082원 들어...전년비 6.5% ↑ 생산량 10a당 483kg으로 5.8% ↓...“기후 요인 작용”



지난해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로 인해 쌀 20kg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만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66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통계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쌀 20kg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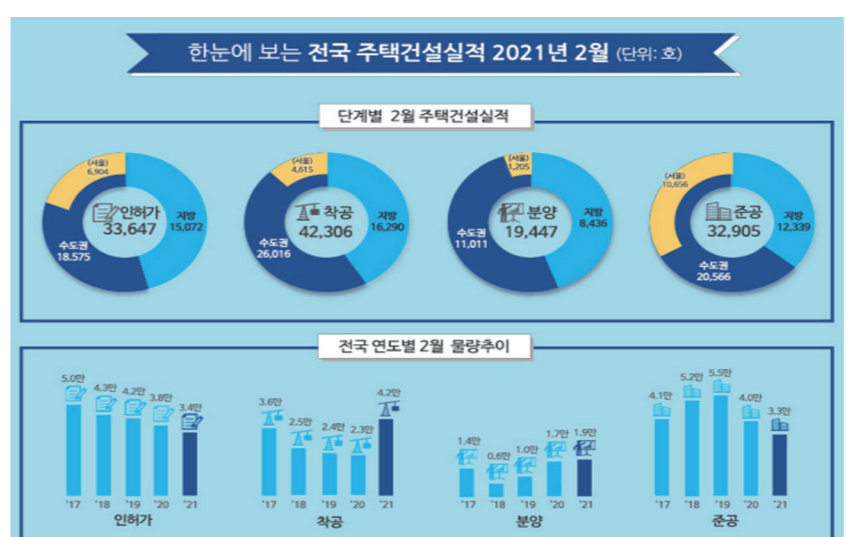
만1082원으로 전년 대비 6.5% 늘었다. 이전까지는 2018년 기록한 2만9347원이 가장 많은 액수였다. 당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쌀 생산 비용은 전년 대비 15.9% 뛰었다. 이어 2012년(2만9189원), 2019년(2만9172원), 2013년(2만7659원), 2014년(2만6861원)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경작 면적당 논벼 생산비용도 늘었다. 경작지 10a(아르=1000m)당 논벼 생산비는 77만3658원으로 전년 대비 0.1% 상승했다. 산지 쌀값(20kg)은 14.0% 증가한 5만4121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상 최장 기간 지속된 장마와 고온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생산 비용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10a당 쌀 생산량은 483kg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7~8월 장마가 50일이 넘게 이어지면서 작물들이 해를 보지 못해 생산량이 줄었다"며 "여기에 태풍의 영향도 더해졌고 이러한 기후적인 요인이 생산 비용 증가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생산 비용은 늘었지만 농가 수익성은 좋아졌다. 지난해 10a당 논벼 경작에 따른 총수입은 121만6248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생산비를 뺀 순수익은 16.7% 늘어난 44만2591원이다. 순수익률과 소득률은 각각 36.4%, 60.2%를 기록했다.

김민정기자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11% 감소...서울은 22% 증가

분양 물량 16% 증가...서울도 21% ↑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11.4% 감소했다. 하지만 서울은 같은 기간 22.2% 증가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주택 인허가실적은 3만3647

가구로 작년 동월 3만7980가구 대비 11.4% 감소했다. 하지만 서울 인허가 물량은 6904가구로 1년 전보다 22.2% 증가했다. 서울이 증가했음에도 수도권 실

적은 1만8573가구로 29.1% 감소했다. 지방은 1만5072가구로 전년 대비 28.1%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만5789가구로 1년 전보다 15.0%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7858가구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2월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전국 1만9447가구로 작년 동월(1만6796가구) 대비 15.8%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1205가구로 1년 전보다 20.9% 증가했다. 수도권 분양 물량도 1만1011가구로 1년 전보다 24.1% 늘었다. 준공 물량은 전국 3만2905가구로 작년 동월(4만3867가구) 대비 18.5% 감소했다. 수도권은 2만566가구로 전년 대비 15.1% 감소했고, 지방은 1만2339가구로 전년 대비 23.7% 감소했다. 착공 실적은 전국 4만2306가구로 작년 동월(2만3373가구) 대비 81.0% 증가했다. 오후나기자